

李 貞 姬 議員

“관광산업이 대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

한나라당 비례대표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대전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성효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은 그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관심을 가졌던 관광분야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세계 경제성장의 키워드로 '녹색성장'이 떠오르면서 우리나라도 세계 일류의 녹색 선진국이 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관광산업의 육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관광협의회(WTTC)는 2019년까지 관광산업이 세계 GDP의 9.5%를 차지하고, 세계 총고용의 8.4%를 담당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잠재력 높은 미래 산업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관광을 통해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시에서도 2007년 ‘동북아 과학관광 중심도시 육성’을 비전으로 제4차 대전권 관광개발계획(2007~2011)을 수립하였고, 2008년에는 ‘2010 대충청 방문의 해’를 유치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전시 행정에서 관광분야는 항상 변두리에만 머물며 관광자원의 빈약만을 탓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서울시의 경우 민선 4기 들어 관광을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규정하고 핵심정책 이슈로 선정하여 행정력과 재정력을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2010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어느 정도인지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무려 천이백만명 유치가 서울시의 목표입니다.

물론 대전시와 비교대상은 아니지만 대전시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는 몇 명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러한 목표 설정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관광을 핵심정책 이슈로 선정하고 행정력과 재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대안과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전의 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전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도시 브랜드는 도시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도시의 속성과 도시환경 그리고 이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 연상이나 감정까지를 포함하고 관광행동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광산업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화·지방화 시대에는 국가 간 경쟁이 아닌 도시 간 경쟁입니다.

이것은 최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제60회 IAC총회 유치과정에서 상해, 프라하 등 세계의 다른 도시들과 경쟁한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뉴욕, 홍콩, 싱가포르 등 세계 선진도시들은 도시 브랜드 육성과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으며,

21세기는 바야흐로 브랜드 경쟁의 시대이며 국가 및 도시 브랜드가 상품의 가치를 좌우하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전시는 어떠합니까?

2007년도 대전발전연구원에서 대전의 관광이미지에 대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전과 가장 가까운 이미지로서 과학중심지, 행정중심지, 교통중심지였고, 관광자원에 대한 인지 정도에 있어서는 엑스포과학공원, 유성온천, 월드컵경기장의 순이었습니다.

아울러 대전 관광에 있어 교통을 제외하곤 대부분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관광공사의 국민여행실태조사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도시, 향후 방문 희망지역 모두에서 울산, 광주와 함께 대전은 매우 낮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어 관광목적지로서는 많은 한계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그동안 대전을 어떤 이미지의 도시브랜드로 키우기 위해 노력해 오셨고, 어떤 설계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표 1 > 가장 기억에 남는 방문지 및
향후방문 희망지역(2006~2008)**

(단위 : %)

구분 순위	가장 기억에 남는 방문지			향후 방문 희망지역		
	2008년	2007년	2006년	2008년	2007년	2006년
1위	강원(16.6)	강원(12.9)	강원(15.0)	제주(34.0)	제주(31.9)	제주(34.1)
2위	경기(10.6)	경기(11.0)	경기(9.9)	강원(14.0)	북한(20.6)	북한(19.0)
3위	경남(9.2)	경남(7.8)	경남(9.6)	북한(13.3)	강원(14.7)	강원(14.9)
4위	경북(8.0)	경북(7.6)	경북(8.3)	경북(9.1)	경북(6.5)	경북(6.4)
5위	충남(6.9)	충남(7.0)	충남(7.8)	전남(8.3)	전남(6.1)	전남(6.3)
6위	전남(6.1)	서울/전남(5.4)	전남(7.3)	부산(6.2)	부산(5.6)	부산(5.8)
7위	부산(4.5)	-	부산(4.8)	경남(4.7)	경남(4.3)	경남(3.5)
8위	서울(4.4)	부산(4.5)	서울/전북(4.5)	서울(1.9)	서울(2.0)	서울(2.0)
9위	전북/제주(4.0)	전북(4.0)	-	전북(1.3)	전북(1.3)	충남(1.5)
10위	-	충북(3.0)	제주(4.4)	충남/경기(1.1)	충남(1.3)	경기/전북(1.2)
11위	충북(3.2)	인천(2.9)	충북(3.3)	-	경기(1.0)	-
12위	인천(3.0)	제주(2.4)	인천(3.1)	인천(0.7)	인천(0.6)	충북(0.8)
13위	대구(1.2)	대구(1.8)	대구(1.6)	충북(0.6)	충북(0.5)	인천(0.7)
14위	대전(0.9)	울산(1.2)	울산(1.2)	울산(0.4)	대구/대전/울산/광주(0.2)	대구(0.3)
15위	울산/광주(0.8)	대전(0.9)	대전(0.8)	대구(0.3)	-	광주/울산(0.2)
16위	-	광주(0.8)	광주(0.7)	광주/대전(0.2)	-	-
17위	북한(0.3)	북한(0.2)	북한(0.2)	-	-	대전(0.1)
-	없음(15.6)	없음(21.1)	없음(13.1)	모름(2.7)	모름(2.8)	모름(1.8)

자 료 : 한국관광공사, 국민여행실태조사, 해당연도

대전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전시 관광 행정체계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관광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은 크게 정책, 기획, 개발, 규제 등과 같은 관광행정을 비롯하여 조사연구, 교육, 훈련, 마케팅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는 문화체육국 산하 관광문화재과에서 관광 기획담당, 관광산업담당 등 2개 조직 13명이 관광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의 관광행정력을 비교해 볼 때, 인력측면에서는 제일 적은 실정입니다.

특히, 타 시도는 관광 기획기능과 홍보기능을 구분하고 있으나, 대전시는 홍보기능이 기획기능에 포함되어 있고 관광 홍보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

결국 관광행정의 위상이란 가히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 언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관광 홍보 내지 마케팅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표 2 > 대전시 관광행정의 위상비교

지 역	국	과	인력(명)	2008년 예산(억원)
서울	경쟁력강화본부	관광진흥담당관 6팀	59	481
부산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5담당	28	81
대구	문화체육관광국	관광문화재과 3담당	22	121
인천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4담당	28	254
광주	도시마케팅본부	관광진흥과 4담당	20	164
대전	문화체육관광국	관광문화재과 2담당	13	142
울산	문화체육국	관광과 3담당	18	177
경기	문화관광국	관광과 3담당	18	581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2담당	8	
강원	환경관광문화국	관광진흥과 5팀 마케팅사업본부 4팀	44	712
충북	문화관광환경국	관광항공과 3담당	17	201
충남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산업과 4담당	19	371
전북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산업과 4담당	23	264
전남	관광문화국	관광정책과 6담당	31	951
경북	관광산업국	관광산업과 관광개발과 관광마케팅단	38	253
경남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진흥과 4담당	18	520
제주	문화관광교통국	관광정책과 5담당	22	553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9.

또한 컨벤션 업무는 문화산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컨벤션 업무는 관광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한국관광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관광과 컨벤션은 동일 부서에 존재하여야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컨벤션 업무는 관광문화재과에서 담당하고 문화산업과는 문화산업진흥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적극적인 관광 홍보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대전은 관광분야에 있어 타시·도와 비교해볼 때 빼어난 천혜의 관광자원도 역사적 유물·유적지도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광홍보 예산은 전국에서 만년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대전의 관광자원을 잘 홍보해서 외지인이 와서 보고 즐겨야 관광산업이 발전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외지인을 대상으로 대전관광을 소개하는 예산도, 전략도 미미하기 그지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년 '2010 대충청 방문의 해'를 맞아 대전, 충남·북 3개 시·도를 대표해 30억원의 사업비로 홍보마케팅을 펼친다지만, 그 이후에는 대전관광에 대해 어떤 전략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로이 만들어지는 관광자원의 운영대책이 필요합니다.

대전은 자연환경보다는 인문환경적인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도시 기반시설이 관광자원화 되는 도심형 관광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준공된 엑스포다리 경관조명, 테마파크, 엑스포 남문광장의 잔디광장, 유림공원, 한밭수목원 3단계 등 새로운 도시 기반시설도 관광자원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남문광장 공간재창조 사업과 동춘당 명품공원화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만 지어놓고 별도의 조직도 운영프로그램도 없이 방치하다시피하고 있는 무형문화재 전수회관과 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시설들이 만들어질 경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력과 조직이 미리 준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앞으로 계속 만들어질 문화·관광 시설들과 문화재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가칭) '문화시설사업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컨벤션산업을 대전의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2007년 대전컨벤션센터가 개관된 이후 대전 시민들은 많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60회 IAC총회를 개최하면서 대규모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국제회의가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국제컨벤션산업협회(ICCА), 프랑크푸르트 박람회장 등 컨벤션 관련 기관과 시설을 방문하면서 컨벤션 산업이 대전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제컨벤션산업협회(ICCА)의 아시아 국가의 회의 산업 상호 비교자료는 대전시가 어느 곳에 초점을 맞추어 회의를 유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ICCА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마케팅 전략 분석 등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구축하여 컨벤션 유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참가자 규모면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대규모 회의 유치는 많은 편이므로 점차적으로 중소규모에 대한 유치 노력이 필요하며,

주제별로는 의학 분야가 국제회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전컨벤션센터가 회의를 유치하면서 이렇듯 전략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컨벤션산업은 고부가 가치산업이며 특히,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산업입니다.

IAC총회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도 몇 차례 치른 경험이 생겼기 때문에 이를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컨벤션 산업 육성을 위해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단순히 회의만 서둘러하고 회의 참가자들이 외지로 나가 관광과 숙박을 한다면 실속없는 허울뿐인 컨벤션 도시가 되고 말 것입니다.

대전을 체류형 컨벤션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유성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지금도 컨벤션 참가 주요 인사들은 청주의 라마다 르네상스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여 백제 재현단지 내에 롯데호텔까지 지어진다면 컨벤션 참가자 뿐만 아니라 유성지역 호텔을 이용하고 있는 일본 관광객까지도 발길을 돌리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컨벤션센터 주변에 특급 호텔의 유치뿐만 아니라 유성지역의 호텔도 국제적 수준에 걸맞는 시설정비 등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최근 코트라(KOTRA)가 대전무역전시관을 매각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전시는 이 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지는 갑천을 조망할 수 있기 때문에 호텔 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며, 기존 호텔부지에는 전시장을 건립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에서만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육성해야 합니다.

축제는 그 도시의 성격을 단적으로 대변하는 종합문화 예술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은 대전의 특색을 갖춘 대표축제가 있어야 합니다. 2년여의 준비 끝에 대전의 대표축제로 내놓은 H₂ O 축제는 사실상 실패작이었습니다.

도시의 정체성과 어울리면서 축제를 통해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대표축제를 개발하고 집중 육성해 많은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치구에서 개최하는 많은 축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금년에만 해도 동구의 ‘대전역 0시 축제’, 서구의 ‘수상 뮤지컬 갑천’, 유성의 ‘이팝축제’등이 있었습니다.

축제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새로운 축제의 개발도 필요하겠지만, 과연 외래 관광객이 얼마나 방문을 했고 또한 지역경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 재정이 열악하여 시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전해주는 상황에서 자치구가 축제를 남발하고 재원 부족을 이유로 시에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부 시·도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축제를 평가해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티투어는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전의 시티투어는 초기에 이용객이 5만명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만성적자에 시민에게도 외면당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티투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0월 해당전문가를 초청해서 정책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위탁업체에 의존하면서 관리감독은 소홀한 체계적이지 못한 형식적인 운영, 그 자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댐질식의 처방이 아닌 전문 컨설팅이나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티투어 활성화를 이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2010 대충청 방문의 해’에서 대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내년은 ‘한국방문의 해’의 시작이자 ‘대전·충청권 방문의 해’입니다.

지금까지 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9개의 사업 이외에도 충남 15개, 충북 43개, 대전 18개의 자체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시에 충남은 ‘대백제전’이, 충북은 ‘국제한방엑스포’라는 대형 행사까지 별도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은 나름대로의 특별한 이벤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충남의 28억원, 충북의 25억원에 비해 뚜렷이 비교되는 약 10억원의 예산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다고 성공적인 사업이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담당공무원을 증가하고 준비 위원회까지 조직한 충남, 충북의 움직임과 비교해 보면 정말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충남, 충북은 이 기회를 활용하여 지역 관광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전기로 삼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전은 그 존재감마저 없다는 느낌입니다.

시장님께서서는 '2010 대충청 방문의 해'를 계기로 대전관광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킬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광활성화를 위해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을 통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관광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타 지자체의 공무원교육원에서는 문화와 관광, 지역브랜드 등과 관련된 내용들을 기획부터 실행까지 체계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관광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 여기신다면 이러한 교육과정을 빨리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지역마케팅 차원에서 관광을 다루고 있거나 지방공사까지 설립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까지는 못 쫓아 간다 하더라도 현재의 인력으로 관광을 담당하기엔 큰 무리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시장님께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뉴 그린파크’와 ‘성북동 종합관광 레저스포츠단지’사업이 완성된다면,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도 필요한데 단지 대전도시공사에만 맡기기엔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시는지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엔 대전도시공사가 동물원과 플라워랜드를 담당하면서 점차 주 업무가 변질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조직도 점차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의 다변화를 위해선 바람직하다고도 판단할 수 있겠으나 향후 전개될 문화관광 측면에서 살펴 볼 때에는 다소 벅찰 수 있으리라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인천이나 경기, 강원, 제주 등이 별도의 전문공기업으로 독립시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엑스포과학공원의 청산과 연계하여 관광, 컨벤션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도시마케팅 공기업의 설립을 검토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동안 대전은 문화 불모지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으나, 민선 4기 들어 이러한 이미지는 사라졌다고 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대전이 관광 취약지라는 이미지도 떨쳐버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